

늘어나는 행복의 별천지들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세계도처에서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정착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실음과 시름의 한숨소리가 그칠새 없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이해에도 신심과 락관에 넘치고 행복에 겨운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고 어디 가나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그 위대한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 봉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나날이 융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현대적인 초고층 및 다층살림집들...
 바야흐로 지방이 변혁하는 새시대를 펼친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인 삼지연시는 또 어떤가.
 삼지연군 읍지구(당시)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백두산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삼지연시가 몇해사이엔 천지개벽되었다. 삼지연시건설이라는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지

방건설의 교과서적인 경험도 마련되었다.
 공화국의 도, 시, 군들에서 지방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행복의 별천지로 변모시킴 드높은 열의속에 새로운 변천을 안아오고있다.
 자연의 대재앙이 모든것을 삼켜버렸던 검덕지구에서 혹심한 피해흔적이 말끔히 가셔지고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 오르고있어 인민들에게 보

다 좋아질 광산도시의 래일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있다.
 이 땅에 솟아난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대한인민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랑의 정기가 있기에 이 땅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비롯한 행복의 별천지들이 나날이 늘어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벼랑길에 내몰린 생존권, 안중에 없는 민생

혈악한 주거환경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은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서 만도 22만 7 000가구의 아이들이 혈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주현이는 부모없이 누나와 산다. 다세대주택 단지에서 컸다. 이 집에 산지는 10년째다. 반지하방바닥에서 아무거나 깔고 잤다. 주현이는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집을 사고싶다.》고 했다. 아바트를 바라는 건 아니다. 《한층만 위로 올라가고싶은》 바람뿐이다.
 주거빈곤은 아이들에게 수척심을 자극한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마음만 다치는것은 아니다. 몸도 또래에 비해 더 아프다. 경기도 주거빈곤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겪는 비율은 9.2%다. 전체 아동가구(4.8%)에 비해 2배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하, 옥상에 사는 아동은 천

식과 중이염에 걸린 비율이 전체 아동가구에 비해 2배가까이 컸다.
 2021년에도 땅아래에, 무허가주택에, 방 칸안에, 컨테이너 등에서 아이들이 산다.
 수도권에서만 22만 7 000가구의 아이들이 혈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다는 보고서는 그간 《아동주거빈곤》을 외면해온 사실을 알려준다. 가장 큰 이유는 로동시장의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은 21세기 남조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세계 최저출산률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제벌 3세와 4세는 배를 불리는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로후 불만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로동시장의

소득불평등이 지나치게 컸기때문이다. 대기업회장급 임원의 년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심각하다.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세대와 로인세대의 빈곤률이 지나치게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세습사회로 변화하고있다는 점이다. 최상위 주식부자 가운데 제벌 2세, 3세비율이 압도적이며 상속형 부자가 70%를 차지한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한국은 지옥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의미다. 이는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개인적 좌절감의 표현이다.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 사회는 대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다.
 본사기자



좁방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남조선빈곤층

발전하는 평화국의 산업미술 (3)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비친 산업미술도안들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두루미》상표도안

태양을 배경으로 하늘을 나는 두루미를 형상한 상표도안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어린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진실하게 나타내고있다. 특징적인것은 상표도안의 색채구성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단순하게 처리하고 양식화수법과 조선헌의 선묘기법을 잘 살려 직관성과 명료성을 보장한것이다.



다락식주택건축장식도안

자연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설하는 다락식주택은 산이 많은 공화국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건축양식이다. 푸른색 조선헌와를 이은 지붕으로 처리한 다락식주택건축장식도안은 민족적인 건축형식을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잘 살리고있다.



공기주입식유희기구도안

공기주입식유희기구는 공원이나 해안가,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공간이 있는 그 어디에나 설치하여 리용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여러개의 구획으로 갈라져있는 유희기구에서는 장에물구복과 미끄럼대타기, 튜빙판 놀이를 할수 있다. 기구는 조립식으로 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구획들을 분리하거나 덧붙여 리용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철

혈분의 자옥을 남긴 자식들

우리 민족사에는 나라를 빼앗긴 의분을 누를길 없애 분연히 일제투목봉에 대한 폭란투척에 나선 한 로인이 있다. 그가 바로 강우규 열사이다.
 강우규 열사는 1910년대말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지사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상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실음속에 가슴을 치던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 동북지방으로 건너갔다.
 그는 1919년 울라지보스포크에서 조직된 반일단체인 《로인단》에 참가하여 활동

강우규



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일제조선총독 사이토를 처단할 목적으로 서울로 갔다.
 9월 2일 사이토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강우규 열사는 마차에 기어오르던 사이토의 면전에 미리 준비했던 폭탄을 재빨리 던졌다.
 그러나 폭탄은 명중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수원 몇명만 부상시켰다.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나와 몸을 숨긴 그는 은거하면서 다시 습격할것을 준비하다가 같은 해 9월 17일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다음해 11월 29일 서대문감옥에

서 사형당하였다.
 당시 65살이었던 그는 사형을 앞두고 《단두대에 올랐어도 마음은 편안하건만 몸은 잊으리 나라가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란 시를 지어 나라잃은 실음을 통탄하였다.
 본사기자

지난 12월 22일은 동지날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동지날을 가리켜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상순에 들면 《예동지》, 상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날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 5월에 곡식이 잘 자라며 눈이 적게 내리면 찬바람이 자주 불면 일기조건이 불리할것으로 예측하였다. 동지날을 이처럼 다음해 5월과 관련시

켜보았으므로 오동지라고도 불렀다.
 동지날에는 팔죽을 특색있게 쑤어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 죽을 《동지팔죽》이라고

동지날 풍습

하였다.
 팔죽을 쑤 때 찰수수가루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같이 빚어넣은 떡을 새알살이라고 하는데 지방에 따라 이것을 《오그람이》, 《도그람이》 등으로 불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팔죽을

먹으면서 나이 한살 더 먹었다는 생각과 함께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았으며 이웃끼리 서로 팔죽을 나누어먹으며 화목을 도모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동지날 해가 뜨기 직전에 팔죽을 쑤어먹는 풍습이 있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팔죽을 겨울밤에 응매기 같은데 떠서 밖에 내놓았다가 먹는 풍습도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고유한 생활습관이 반영된 동지죽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화첩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출판사에서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도시로 나날이 변모되고있는 평양의 모습을 담은 화첩 《여기가 평양입니다》를 내놓았다.
 화첩에는 단군릉과 동명왕릉, 송명전, 광범사, 대동문, 보통문 등 고색창연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력사유적과 유물들의 사진을 통하여 평양의 유구한 력사를 펼쳐보이고있다.
 화첩을 펼치면 만경봉과 룡악산, 모란봉, 대성산의 기묘한 절경과 비단필을 펼쳐놓은듯싶은 대동강과 보통강변의 아름다운 풍치 등 세상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명승의

보쌈 김치 (5)

허둥지둥 달려 최대감네 집에 들어서니 풍뎉한 안방마님이 내다보았다.
 《어랍쇼, 왕궁살이하는 궁녀님이 나오셨구나. 그네네님은 궁녀랍시구 호의호식 하지만 빈 행랑방에 내던지고간 늙은 에미는 우리더러 거두어달라는거냐? 흥, 낯짝 두렵기가 곰발바닥같구나.》
 고분이는 억울함을 참을수 없어 나직이 대답했다.
 《그저야 대감님이 천체를 대궐에 바친탓이지요.》
 《뭘? 바쳐? 이년이 왕궁물을 먹었다구 어디다 대고 대답질이나. 왕궁에서 어명으로 끌어간것이지네깸을 어디다 쓸데 있다구 바치겠느냐. 두말말구 네에 미가 1년나마 내 집에 얹혀 살았으면 그동안 받아낸 비단필이랑 패물이랑 다 내놓아라.》
 고분이는 왕궁에서 그런것을 받아둔것도 없었뿐더러 대감집 부엌살이를 1년나마 했어도 값은 한번도 받은적 없었으니 그것이면 어머니뎡양에 모자라지 않을것이라

그림 김윤일

《아이고! 불쌍한 어머니, 이 못난년이 왕궁으로 끌려간닷에 어머니는 남의 집 행랑에서 외로이 돌아가셨어요. 한생을 다 바쳐 어머니를 잘 봉양하리라 마음먹었던건만 이 모진 세상은 그 소원마저 이루지 못하게 하였어요.》
 아, 어머니! 다시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풀뿌리를 캐먹어도 좋으니 어머니곁에서 마음씨 고운 이웃들과 함께 살겠어요.》
 뒤따라온 마을로인들과 아낙네들이 고분이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듯이 위로해주었다.
 《오냐, 우리 서로 의지하여 살아보자. 아무리 모진어도 사람이 살아 인간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며칠후 한양대궐에서 점점더그레 입을 라죽들이 우르르 흘러나와 고분이를 잡아갔다.
 제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내자시 관리들이 고분이를 무성케 달랠것이었다.
 끝끝내 고향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자 나

라도 입금도 모르는 불충무도한 년이면서 태장 30개를 안겨서 대궐밖으로 내쫓았다.
 고분이를 아껴주던 몇몇 궁녀들과 무수리, 차비들이 왕궁에서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고분이는 매를 맞아 운신했을 없게 된 몸을 이끌면서 분연히 대궐을 뛰쳐나왔다.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마을좌상로인네 집에 몸져눕고말았다.
 고분이는 고향을 떠나 3~4년간 흉년가을집살이와 최대감집 부엌살이, 왕궁차비살이로 청춘은 다 시들고 어느덧 나이 마흔에 이르렀다.
 녀자가 마흔이되면 할머니

소리를 듣는것이 당시 세속이었다.
 그러나 고분이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처녀였다.
 부모도 자식도 없는 무우밀등같은 홀몸이었다.
 아, 그가 세상에 남긴것이 있다면 가난이 만들어준 보쌈김치뿐이랴 할가.
 며칠후 매맞은 어혈을 풀지 못한채 고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평생 세상을 영

일한 흔적이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자식》이었다.
 길지 않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가 거기에 다 깃들여있었다. 고분이가 비록 길에는 람투를 걸었지만 가슴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훌륭한 맛과 고운 빛깔을 간직하고있는 보쌈김치!
 보쌈김치는 곧 그자신이고 그의 인생이었다.
 오늘 조선김치는 세계적인 건강장식식품으로 등록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보쌈김치는 조선의 고유한 민족음식중의 하나인 김치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하나의 크지 않은 민족음식의 창조와 발전과정을 돌이켜볼 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력사를 창조해온 인간들과 그들의 운명이 깔려있음을 짐작도 있을수 없다.
 사람들이 매를 이어오면서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다지고 가꾸고 굳혀온것이 풍속일진대 그 풍속을 지키고 빛내이는 것은 곧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빛내이고 인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에 잇닿아있다는것을 재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끝)
 편집위원회

